

Name: 정호성

이르신을 위한 인공지능(AI) 돌봄 로봇을 개발 공급하는 이스터마인드가 벤처캐시스를 통해 15억 원 규모 '프리A' 투자를 유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스터마인드는 돌봄 로봇을 이용해 이르신의 우울증과 치매를 평가, 정신건강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한 기업이다.

이스터마인드는 2017년 설립된 인포뱅크, 벤처스퀘어에게 시드와 록스 투자를 유치하고 기술 창업 투자 프로그램 팀스(TIPS)에 선정된 기업이다. 아바타톡 아키텍처 기술을 특허로 보유하고 있고 자연어처리(NLP) 기술 확보도 보유하고 있다.

회사는 2019년 서울 마포구청을 시작으로 30여곳 지자체에 돌봄 로봇을 공급했다. 최근에는 충청남도와 울산광역시 등에 로봇을 제공했다. 서울 동대문구청 개혁신로 제작된 '중이와 정상욱'의 여성군의 '자주'와 등이 모두 이스터마인드가 제작한 돌봄 로봇이다. 이 로봇은 이르신의 정신건강 이상 징후를 발견하는 역할을 한다.

이스터마인드는 로봇과 이르신의 대화, 자기 보고형 척도(SM(O.GDS)) 등을 통해 습득한 정보를 기반으로 이르신의 정신건강 상태를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 기술로 치매와 우울증, 자살, 고독사 등의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

또 이 로봇은 이르신의 건강관리를 보조하는 역할도 한다. 능동대화기능을 탑재해 하루에 10~20회 정도 이르신에게 주인의 말을 건다. 약 복용 시간을 알려주기도 하고, 이르신과 인기농담 향상을 위한 퀴즈 대결도 한다.

김동원 이스터마인드 대표는 "AI 머신"이라든가 인위적으로

"사람들에게 인공지능으로 만든 '친구'를 만들어주고 싶어 이 사업을

시작했다"며 "사람들이 하는 일을 대체할 AI 머신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 '친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라고 밝힌 바 있다.

ceci